

'한국 증시 상장 노크하세요'...한인 기업인 설명회 200여명 참석



9일 월셔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증권시장 상장 설명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원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국제금융실장, 최형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미주법인 대표, 광성신 KRX 코스닥 본부장, 최기호·김훈 CKP 공동대표

"미국기업으로서 한국증시 상장 1호라는 브랜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증권시장 상장 설명회가 9일 월셔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한국 증권선물거래소(KRX)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200여명의 한인 기업인들이 참석해 한국 증시 상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손원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국제금융실장은 "미국 내 한인기업이 한국상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이익중 하나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라고 지적했다.

손 실장은 "특히 한국에 신규사업 진출 계획을 갖고 있는 한인기업이라면 자금조달과 함께 미국기업으로서 한국상장 1호라는 홍보 효과를 통해 기업 인지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성신 KRX 코스닥시장 본부장은 "유망한 미국 내 한인기업들이 한국증시에 상장함으로써 업주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한국의 투자자들은 우량주식에 투자기회를 얻는 윈-윈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관사인 CKP회계법인의 최기호 대표는 "미국 상장에 비해 한국 상장은 상장비용과 유지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KRX는 한국증시 코스피 코스닥 선물환 시장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한 준 정부기관이다.

이번 행사는 또 LA에 본사를 둔 한인 회계법인 CKP회계법인과 한국의 투자전문기관인 골든브리지가 KRX와 공동으로 주관했다.

▷문의: (949)757-0900

김기정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